



연락처

주소: 경기도 광주시 삼동 포레힐스
205동 102호

frontjsw@naver.com

<https://github.com/frontjsw>

010-9810-9659

조승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자기 소개

저는 헬프미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신입으로 지원하게 된 끊임없이 성장하는 신입 조승원입니다.

경력

신입

학력

신구 대학교

미디어 디자인 | 2016년 3월~2019년 3월

기술 요약

●●●● HTML

●●●● CSS

●●●● JS

●●●● SCSS

●●●● React



연 락 처

주소: 경기도 광주시 삼동 포레힐스
205동 102호

frontjsw@naver.com

<https://github.com/frontjsw>

010-9810-9659

성 장 과 정 << 도 전 을 즐 기 는 사 람 >>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배우고 싶은 게 많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길을 찾기 위해 입시운동, 실용음악, 패션마케팅 등을 공부하며 분야를 넓혀나가던 중 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중 웹디자인 수업에서 웹 개발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드림위버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웹이라는 도화지에 그려주었고 지금의 꿈의 시작점 앞에서 있게 해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하는 개발자는 저에게는 도전의 연속이될 거로생각합니다. 그 도전을 성공으로 바꾸는 시작점에 저는 지금 서있습니다.

성 격 의 장 단 점 << 대 담 한 통 솔 자 >>


저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최적, 가장 완벽한 루트로 이루려고 합니다. 때론 그 과정이 시작하기에 사전조사에 시간이 들고 이 루트가 완벽하지 계속 해서 의심하여 쉽게 작업이 이루어나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전략적인 사고와 정확성으로 계획을 단계별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동료와의 협업에서도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최적의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뤄나가는 목표에서 그 기동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 목이 되고 싶습니다.

그 동 안 제 역 량 을 키 우 기 위 해 한 노 력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것이 꿈이 된 이후로 비전공자로서 가장 이상 적이다 생각하는 길로 퍼블리셔로서 업무의 사이클을 적응하면서 개발공 부를 하여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어, 퍼블리셔 개인과외를 받고 작은 에이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 각한 업무와 많이 달랐고 고객사의 맞춘 특색있는 홈페이지가 아닌 CMS 사용으로 미리 만들어진 게시판,페이지에 컬러만 바꾸는 식으로 작 업이 이루어지다보니 개발자가 되기위한 기술적인 부분의 성장이나 협업 적인 부분의 경험을 쌓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 후 개인 기술 역량을 높이기위해 온라인 강의와 책을 보며 HTML,CSS,JS 를 다시 공부하게 되고 나아가 React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연 락 처

 주소: 경기도 광주시 삼동 포레힐스
205동 102호

 frontjsw@naver.com

 <https://github.com/frontjsw>

 010-9810-9659

헬프미에 지원하는 이유

아직 기술적인 역량이 퍼블리셔 신입정도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직군에 지원을 한 이유는 채용공고에서 자신감을 얻고 회사의 핵심가치를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핵심가치 중 개방성과 투명성을 읽고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발이라는 분야에 적용을 해보았을 때 회사별로 요구하는 기술적인 역량이나, 바라는 인재상은 회사별로 상이하겠지만, 헬프미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협업에 대한 부분과 일을 바라보는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개발에서 협업에서 중요한것이 뭔지 생각해보니 개발에서 팀 프로젝트의 중요한 점은 진행상황이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언제까지 어떤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제 자신에게 대입을 해보았을 때 기술적인 역량에 자신감이없다면, 작업 완료시점을 예상하지 못할것이고 숨어서 작업한 후 결과물만 들고 나오는 협업으로써 곤란한 잠수함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써는 맥락,흐름을 이해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초기 설계, 구축, 런칭, 운영까지의 사이클을 경험하는 부분이 아직 저에게는 없었기에 부족한 역량이지만 개발에서 항상 완성이라고 생각한 시점이 사실은 종착역이 아닌 시작점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초기 계획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 헬프미의 입사하는것이 제 꿈의 길을 단단히 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